

# 지역경제 회복 위해 발 벗고 나선다

### 전북중기청, 내일부터 중소기업 지원사업 합동 순회 설명회 열어

### 도내 17개 지원기관 합동·지원예산 10조 3000억원... 역대 최대규모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2019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합동 순회 설명회'를 내일부터 29일까지 총 9회 실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설명회는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정책수요가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로 진행되며 도내 17개 기관이 9개 시·군을 순회하게 된다.

참여기관(총17개)은 전북중소벤처기업청, 전라북도, 산업통상자원부, 전북우정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

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KOTRA, 중소기업중앙회, 기술보증기금,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기금,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지식재산센터이다.

특히, 2019년도 중기부 예산은 10조 3,000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15.9% 증가한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됐다.

주요사업으로는 정책자금 5조 6,000억원, 기술개발 1조 5,000억원, 창업 8,811억원, 소상공인·전통시장 7,587억원, 수출·마케팅 2,203억원 등이다.

금년도 주요사업 변경내역으로는 정책자금 융자한도가 기존 45억(지방기업 50억)에서 60억(지방기업 70억)으로 확대, 자금신청 제한기업이라도 기술성이 우수하면 특별심사를 거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됐다.

R&D 사업은 연초 집중신청을 받는 방식에서 연6회 수시 신청방식으로 변경, 공고일부부터 선정까지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신속지원체제로 변경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0% 대를 통한 경영부담의 획기적 완화를

위한 '제로페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또한, 전북중기청은 합동순회 설명회 외에, 전통시장, 수출기업, 소상공인, R&D 등 업종별·대상별 설명회를 추가로 하여 지역소재 중소기업의 정책수혜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김광재 전북중기청장은 "최근 전북 지역은 조선, 자동차산업의 위기로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각종 지원사업을 활용, 최대한 지원을 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이주지주무관(063-210-6412)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 강태호 농협생명 前 부사장 '농협케미컬' 대표이사 취임

### 농가소득 5000만 달성 위한 지속성장 사업기반 구축 다짐

농협케미컬(대표이사 강태호)은 지난 2일 대전 물류센터 홍보관에서 강태호 농협케미컬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식과 기해년을 시작하며 2019년 시무식을 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여신부장, 전북지역본부 본부장을 거쳐 작년 농협생명 부사장을 역임했다.

또한, 강태호 대표이사는 "지속되는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미래 지속성장 사업기반을 구축하여 농업인과 농협케미컬이 하나라는 생각으로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태호 대표이사는 "소통·화합으로 임직원 모두가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시장을 선도하는 일류 기업으로 나가겠다"며 굳은 결의를 다졌다.

특히, 강태호 대표이사는 1982년 농협대 졸업 후 전북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88년 농협에 입사하여 농협 상호금융

/김영태 기자

## '지역사회 발전과 업계 위상제고에 기여 할 것'

### 건협 전북도회, 신년 인사회 가져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는 기해년 새해를 맞아 지난 3일 전주 라투체에서 신년인사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특히, 김태경 회장은 "지난 해 중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하도급 전담부서 신설'이 값진 결실을 맺었고 전주시와 체결한 '지역건설 활성화 위한 업무 협약'을 통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새해에도 협회는 회원사의 수주물량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건설관련 법령의 합리적 개정과 적정공사비 확보, 공정하고 투명한 원,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전문건설 장학사업, 이웃돕기 등 사회 공헌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업계 위상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년인사회에는 협회 회장단, 감사, 운영위원, 업종 별 지역 위원장 및 회원사 등이 참석하여 업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김영태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가 기해년 새해를 맞아 지난 3일 전주 라투체에서 신년 인사회를 가졌다.

##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 덜어드립니다'

### 3년간 교통유발·지하수이용부담금 등 4개 부담금 추가 면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지난해 12월 24일 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12월 31일부터 시행되어,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금이 크게 줄어든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확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시행되는 개정 법률은 3년 이내의 제조 창업기업을 대상, 부담금 면제를 확대하고 6~7년차 제조 창업기업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16개 부담금 중 공장 설립과 관련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의 면제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평균적으로 공장설립 기간이 창업 이후 약 8년 이상 걸리지만, 현행 제도는 5년 이내로 한정되어 창업 6~7년차 기업은 부담금을 면제 받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경우 제조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전력산업기반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총 12개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3년 이내 제조 창업기업은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4개 부담금도 추가로 면제 받게 된다.

김광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범위가 확대되어 도내 제조업 창업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로 제조 창업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부담금을 면제 받으려는 창업자는 부담금 면제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http://www.k-startup.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롯데백화점 전주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카페 아슬란' 팝업 행사를 진행 중이다.

## 롯데백화점 전주점, '카페 아슬란' 팝업스토어 열어

롯데백화점 전주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는 오는 16일까지 부산 유명 베이커리 '카페 아슬란'의 시그니처 메뉴인 '인절미 빵' 팝업 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특히, '인절미 빵'은 고소한 콩고물

이 들어간 부드러운 크립과 달달한 단팥의 조화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한편, 가격은 1개 3,000원, 1박스(4개) 10,000원에 만나볼 수 있다.

/김영태 기자

## 전북중기청,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내수기업을 포함, 수출실적 500만불 미만기업,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글로벌중소기업에 대해 수출 준비활동,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을 지원하는 '2019년 1차 수출바우처사업' 참여희망 기업을 모집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수출액 확대, 글로벌역량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특히, 수출바우처사업은 중소기업 글로벌역량에 따라 내수기업, 수출 10만불 미만의 기업은 수출초보, 수출 10만불~100만불 미만의 기업은 수출유망, 수출 100만불~500만불미만의 기업은 수출성장, 수출 500만불 이상은 글로벌강소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한다.

또한, 선정기업에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http://www.exportvoucher.com))에서 세부사업별로 3,000만원부터 최대 1억원(정부지원금 기준)까지 사용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가 선정기업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대 70%까지 차등 지급된다.

아울러, 선정기업은 지급된 바우처로 디자인개발, 전략컨설팅, 해외규격인증, 해외시장조사,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해외진출준비활동 및 온·오프라인 해외진출 마케팅 등 982개 수행기관의 5,000여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 및 이용 한 후 소요 비용을 정산하면 된다.

한편,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심사·현장평가 등을 거쳐 선정될 예정이고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성희준 수출전문위원(063-210-6485)에게 문의하면된다.

/김영태 기자

## 한국은행 전북본부, 도내 중소기업 설 특별자금 지원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설 2월 5일을 앞두고 단기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100억원의 설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동 특별자금은 도내 금융기관 각 영업점이 7일부터 2월 1일까지 업체당 10억원 이내에서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50% 이내의 금액을 연 0.75%의

금리로 금융기관을 통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지원한다.

한편, 지원대상 및 조건은 기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도내 금융기관이 취급한 운전자금 대출하고 부동산업, 주점업 등 일부 업종 및 고신용등급 해당 업체는 제외된다.

/김영태 기자

# 적십자회비 참여는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이 됩니다.

##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 2018.12.1 ~ 2019.1.31 (연중모금)

### 지금 바로 참여해 주세요!

- 금융기관
- 가상계좌
-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 QR코드
- 편의점
- 신용카드(또는 신용카드 포인트)

### 2018년 적십자회비, 이렇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약 14억2천만원
- 재난 구호 활동 약 1억3천만원
- 안전 지식 보급 약 6억3천만원

\*정기후원 및 단체 기부금 지원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원문의 063)280-5821~2

